

2023.10.23. 동예루살렘 소재, 국제문제 연구소(PASSIA) 소장

Dr. Mahdi Abdul Hadi가 보내온 사진

Look at the impossible high spirit in their magical smiles, defying Israeli genocide against them. Such a people will never leave, will never be defeated, and will never disappear. This is the photo of the century.



가자의 집단학살, 마법 같은 미소와 고귀한 영혼
: 우리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임

2023.10.17. 이스라엘 국가안보 및 시온주의 전략

연구소, The Misgav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Zionist Strategy(소장: 2017~2021, 네타냐후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Meir Ben Shabbat) 는 가자 지구의
완전한 인종청소를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전체 가자 지구 주민의 이집트 이주 및 최종 정착
: 지금은 이집트 정부와 협력하여 가자 지구 전체를
비울 수 있는 독특하고 드문 기회」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놓음.

이 보고서는 “가자 지구 전체 주민의 재정착과 경제적
회생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은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 사우디의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과 잘 부합한다”고 주장함.

2023.10.24. '인간 동물'Human Animals':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언어의 역사

- 2023.10.09.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 “가자 '완전 봉쇄' 발표: 전력, 식량, 연료 없음. 우리는 인간 동물들human animals과 싸우고 있음”
- 2023.03.19. 서안지구 행정업무 총괄 및 이스라엘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은 것은 없었다. 누가 팔레스타인인지 아느냐? 내가 팔레스타인인이다”
- 2023.08.23. 국가안보부 장관: 내무+공안+국경/서안지구 경비업무 총괄 벤그비르 “유대아와 사마리아(서안)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동 권리는 아랍인들의 이동 자유보다 더 중요
- 2019.02.25. 벤 그비르,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는 이스라엘 아랍인들은 추방되어야 함”
- 1969. 총리 골다 메이어 “팔레스타인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 1982. 총리 메나헴 베긴 “팔레스타인인들은 두 다리로 걷는 짐승들”
- 2013. 이스라엘 랍비&의회의원 엘리 벤 다한 “팔레스타인인들은 동물과 같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MIDDLEEASTMONITOR.COM

'Human Animals': The sordid language behind Israel's genocide in Gaza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31024-human-animals-the-sordid-language-behind-israels-genocide-in-gaza/?fbclid=IwAR02ICZbuW8GUK0vTezK7MTFhwjc9SUy7A_8jvM7BLP0JBuYyEkrLjK5UcM

발제에 앞서 드리는 말씀

- 2023.10.07~24,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6,125명 살해, 내부난민 140만/230만 명 발생.
- 2023.10.07~24,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1,400여명 살해.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일 하니아는 알 샤티 난민촌 출신, 하마스 가자 지구 책임자 야히야 신와르는 칸유니스 난민촌 출신, 이번 이스라엘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무함마드 데이프도 칸유니스 난민촌 출신. 이 주요 하마스 수뇌부 부모들은 1948년 전쟁으로 이스라엘 영역이 된 지역에서 축출된 난민임.
- 가자 주민의 80%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발생한 전쟁으로 축출된 난민. 고향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1967년 이후, 56년 동안 이스라엘의 억압적인 통제와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인종차별 체제아래에서 고통 받아 왔음. 특히 가자 지구는 2007년 이후 이스라엘 군의 봉쇄와 포위뿐만 아니라, 물과 전기도 통제 받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늘만 뚫린 감옥.
- 엄청난 인도주의적인 위기와 재앙을 초래하는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 전쟁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정치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종교•종파•혈통•국적 같은 배타적인 정체성 규정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인권에 토대를 두어야 함.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기본구조는 내부동력을 무력화하는 영국, 미국의 정책 등 외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 창출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이것은 국제사회가 이 분쟁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임.

발제 내용

☐ 팔레스타인 경계 획정: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 1921.03. 예루살렘에서 식민부장관 처칠, 고등판무관 사무엘, 트랜스요르단 아미르 압둘라가 팔레스타인 경계 획정합의

☐ 이스라엘 국가 창설

: 팔레스타인인들 축출, 부재자 재산법, 귀환법(이스라엘 영토의 80% 국유지)

-> 1948.12. 유엔총회결의 194호: 난민들 귀환권 및 비귀환 난민 재산 보상권

☐ 팔레스타인 국가 무력화: 1948, 1988, 2012 팔레스타인 국가선언

-> 미국이 모두 반대

☐ 미국의 정책: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신기루

☐ 무엇이 문제인가: 정착민 증가, 팔레스타인인 축출

-> 1949.08. 제4차 제네바협약: 점령지에서 피정복민 추방, 이송, 소개금지, 점령세력 민간인 점령지로 이주금지

☐ 1967년 전쟁에 대한 유엔의 대응: 안보리 결의 242호

-> 1967.11. 최근의 분쟁에서 점령한 영토로부터 이스라엘 무장 병력의 철수

☐ 분할 통치 전략: 무슬림 형제단, 하마스 창설

☐ 두 국가 해결안 및 자치정부,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 여론



• 1922~1948년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1922년 트랜스 요르단 분리)

□ 팔레스타인 경계 확정 Historical Palestine
: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영국의 팔레스타인 여권(1925~1948)

- '영국 위임통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의 출생 증명서에서 태어난 곳은 팔레스타인으로 명기(예: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 1925년 시민권 칙령: 1925년 8월 1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오스만 제국 신민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명시, 출생과 귀화에 의한 팔레스타인 시민권 취득 요건 규정. 이곳 거주 원주민과 이주자 유대인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시민임
-> 귀화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시민권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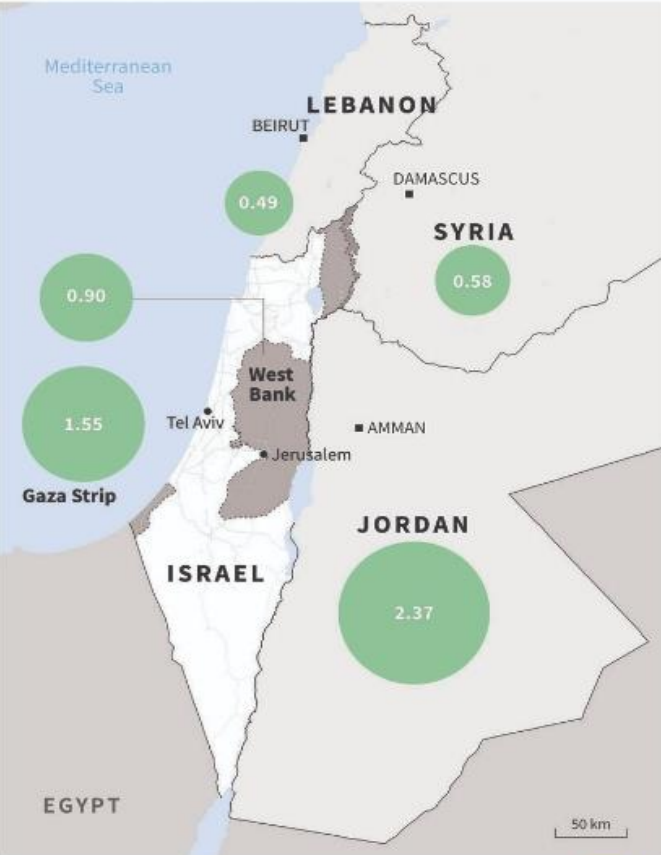
□ 이스라엘 국가 창설, 팔레스타인인들 축출: 75만 8천명

:UNRWA(1949년 12월 창설,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난민은 '1946년 6월 1일~1948년 5월 15일까지 기간 동안 일상적인 거주지가 팔레스타인이었고 1948년 전쟁의 결과로 집과 생계 수단을 모두 잃은 사람과 팔레스타인난민 남성의 후손과 입양된 아이들'.

UNRWA는 1950년 약 75만 명, 2023년 8월 약 590만 명에게 서비스 제공-> 난민 문제는 현재 진행형

Palestinian refugees

Registered by UNRWA* in 2022, in millions



Sourc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Map data: OSM AFP



HAARETZ.COM

Burying the Nakba: How Israel systematically hides evidence of 1948 expulsion of Arabs



IMEMC.ORG

Al-Mezan: "Nakba survivors in Gaza mark 75 years of ongoing refugeehood, settler-colonialism and apartheid..."

▷ 나크바(1947~1949년)

: 시온주의자들은 531개(총 1,300개) 마을 완전 파괴, 774개 마을 점령, 시온주의 무장단체는 약 51건~70건 학살로, 약 1만 5천 명 팔레스타인인들 살해.

□ 이스라엘 국가 창설: 팔레스타인 난민, 부재자 재산법, 귀환법

1948년 전쟁 → 팔레스타인 난민 발생		
난민수	이스라엘 발표	52만 명
	유엔 팔레스타인 조정위원회 발표	75만8천 명
1950년 3월 이스라엘 의회 '부재자 재산법' -> 팔레스타인 난민 재산 몰수 합법화		
1950년 7월 '귀환법' -> 유대인 이주·정착, 팔레스타인인 추방제도화		

- **'부재자 재산법'**: "부재자의 재산은 점유자에게 귀속되며, 재산 점유자들은 전 재산을 이스라엘 정부에 판다." 이로써 이스라엘 정부는 손쉽게 팔레스타인인들 재산 몰수를 제도화함.(2017년 현재 1949년 휴전선내 이스라엘 영토의 93%는 공유지/**국유지:80%**, 유대민족기금 소유: 13%)
- **'귀환법'**: "모든 유대인은 새로운 이주자로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는다."고 규정. 결국 이스라엘은 '부재자 재산법'과 '귀환법'을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아랍인들을 추방시키고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킴

-> 유엔 총회 결의 194호(1948.12.11): 난민들 귀환권 및 비귀환 난민 재산 보상권 규정

□ 팔레스타인 국가 무력화

▷ 이스라엘 국가선언-1948.05.14

- 1948년 5월 15일 미국이, 5월 18일 소련이 이스라엘 국가를 공식적으로 승인.
- 1949년 5월 11일, 이스라엘 유엔 가입 승인, 59번째 회원국

▷ 1st. All-Palestine Government 팔레스타인 국가 선언 -1948.09.22

- 1948년 9월 22일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민족 평의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팔레스타인국가 창설 선언. 예루살렘 무프티 하지 아민 알 후세이니를 대통령으로, 아흐마드 압둘 바끼를 총리로 선출하고, 12명의 장관으로 정부 All-Palestine Government수립.
- 미국, 소련 등 열강들과 트랜스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거부.
- 팔레스타인 국가 무력화: 이스라엘+트랜스 요르단
- 최종적으로, 이집트 대통령 가말 압둘 나세르가 이집트-시리아 아랍 연합 공화국(1958.02-1961.09) 창설한 이후, 1959년 명목상으로 존재하던 팔레스타인 국가 해체 -> 1959년 팔레스타인 대통령 하지 아민 알 후세이니는 레바논으로 이주.

▷ 2nd PLO 팔레스타인 국가 선언-1988.11.15

- 1988.11.15. PLO가 알제에서 "아랍 예루살렘을 수도로,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을 명시하는 팔레스타인 독립선언을 채택.
- 1988.12.15. 유엔총회결의 43/177채택: 위 PLO 독립선언을 인정 (미국, 이스라엘만 반대).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후속조치 없음

□ 팔레스타인 국가 무력화

- ▶ 3rd 유엔은 팔레스타인 국가State of Palestine 승인- 2012.11.29
 - 2012.11.29. 유엔총회결의 67/19호가 State of Palestine승인(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 9개국 반대)
: 두 국가 해결안 제시"1967년 이전 경계 기반으로 이스라엘과 평화롭고 안전하게 나란히 살아가는 독립적이고, 주권 있고, 민주적이고, 생존가능하며viable, 인접한contiguous 팔레스타인 국가
 - 2012.12.17. 유엔은 모든 유엔 공식 문서에서 State of Palestine 호칭 사용 선언.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으로 Palestinian Authority 부름.

▶ Palestinian Authority가 여권/여행증명서 발행

- 1995년 4월 이후, PA가 계속 발행
- PA 여권발급은 이스라엘의 안보 제한 조치에 따름.
- 미국은 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국적/시민권 인정 안 됨)로 인정-> 미국은 State of Palestine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 -> 결국은 미국, 이스라엘 정책이 분쟁 해결의 열쇠
- 2016.06.17. 팔레스타인 내무장관 후세인 알 셰이크가 이스라엘 정부에게 State of Palestine 이름과 직인이 찍힌 passports 발행을 선언 했으나, 이스라엘이 거부.



□ 미국의 정책: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신기루-> 팔레스타인인들의 시민권 요구 방해 장치

▷ 2002.06.24 조지 부시의 팔레스타인 국가 로드맵

- 이스라엘과 나란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나란히 살아가는 **an independent, democratic, viable Palestinian State** 제시
- 2002.09.17. 중동평화 중재하는 4자, 즉 미국, EU, 러시아, UN은 부시의 로드맵에 대한 공동 환영 성명
- 2003.05.25. 샤론 내각이 로드맵 조건부 승인(팔레스타인 국가는 서안의 42%, 가자의 70%)
 - : 하마스, 이슬람지하드, 알 아크사여단 등 무장단체 기반시설 파괴, 완전제거,
 - : 임시 팔레스타인 국가는 임시 경계, 제한된 주권, 제한된 장비만 갖춘 경찰 및 내부 보안대, 군대없이 완전히 비무장화, 방위동맹 군사협력 수행 할 수 없음. 이스라엘은 모든 주민들과 화물의 출입, 영공, 통신매체들,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통제.
 - : 유대국가로 존재할 이스라엘 권리, 팔레스타인난민 귀환권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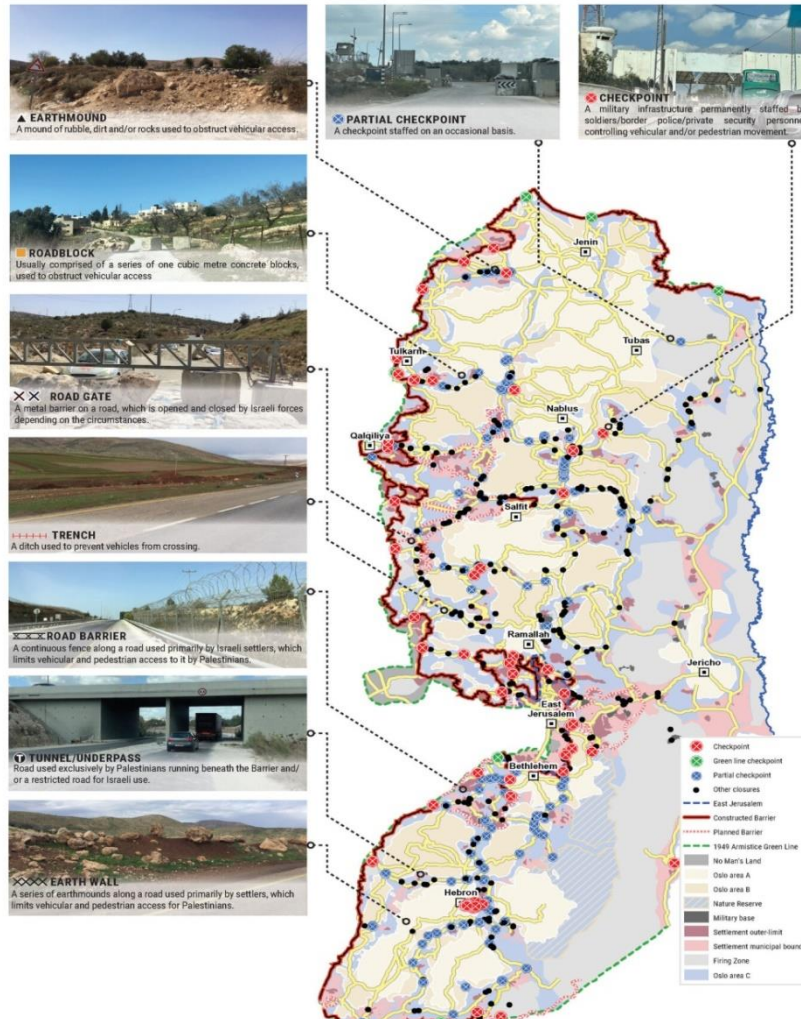
▷ 2020.01.28. 트럼프의 평화안, '번영을 위한 평화' -> UAE와 사우디는 트럼프 평화안 찬성.

▷ 2021.09.21. 조 바이든의 제 76차 유엔총회 연설: **이스라엘의 미래보장을 위한 두 국가 안**

-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의심할 여지 없음.
- 독립 유대국가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명백. 나는 두 국가 해법이 **생존가능하고viable 주권있는 민주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와** 나란히 공존하는 **유대 민주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 2023.08.25.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O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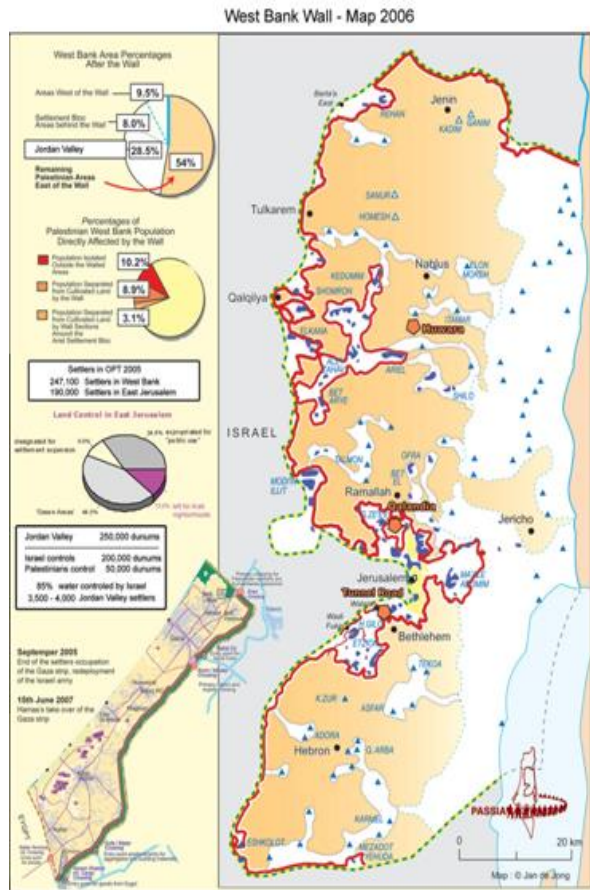
- 645개의 이동식 장애물이 서안 전역에 설치(2020년 초 593개 장애물보다 8% 증가).
- 712km 분리장벽(현재 65% 건설 완료) 대부분은 요르단강 서안 내부를 관통하며 사람들 이동에 커다란 장애물 -> **거대한 감옥**
- 2021년 OEC 통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세계 3위(6.49%, 전기, 석유, 물, 식료품 등) 수출시장(미국 26.5%, 중국 7.86%, 인도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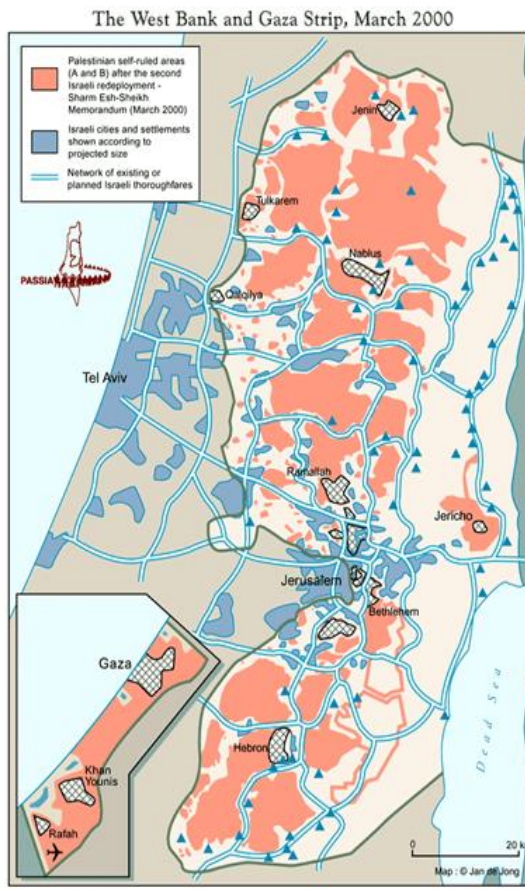
2020년 트럼프평화안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협상의 결과물: 분리장벽, 관통도로, 검문소



분리 장벽



Palestinian Academic Society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Affairs (PASSIA)

관통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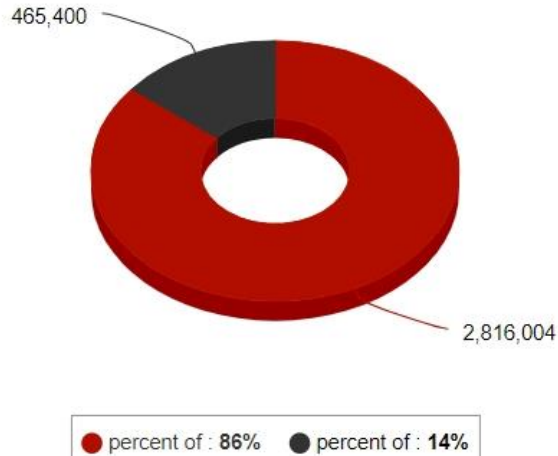


간선도로

□ 무엇이 문제인가 : 서안에서 이스라엘 정착민의 급격한 증가 'Maximum Jews, Minimum Palestin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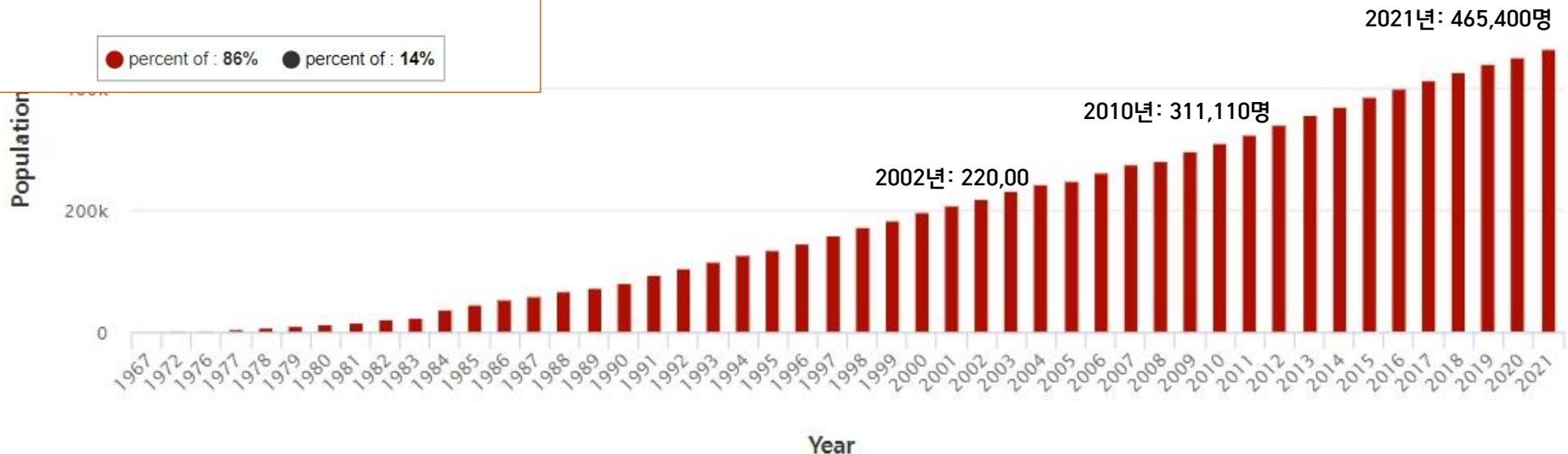
West Bank Population

2021년



Number of Settlers by Year

Source: IC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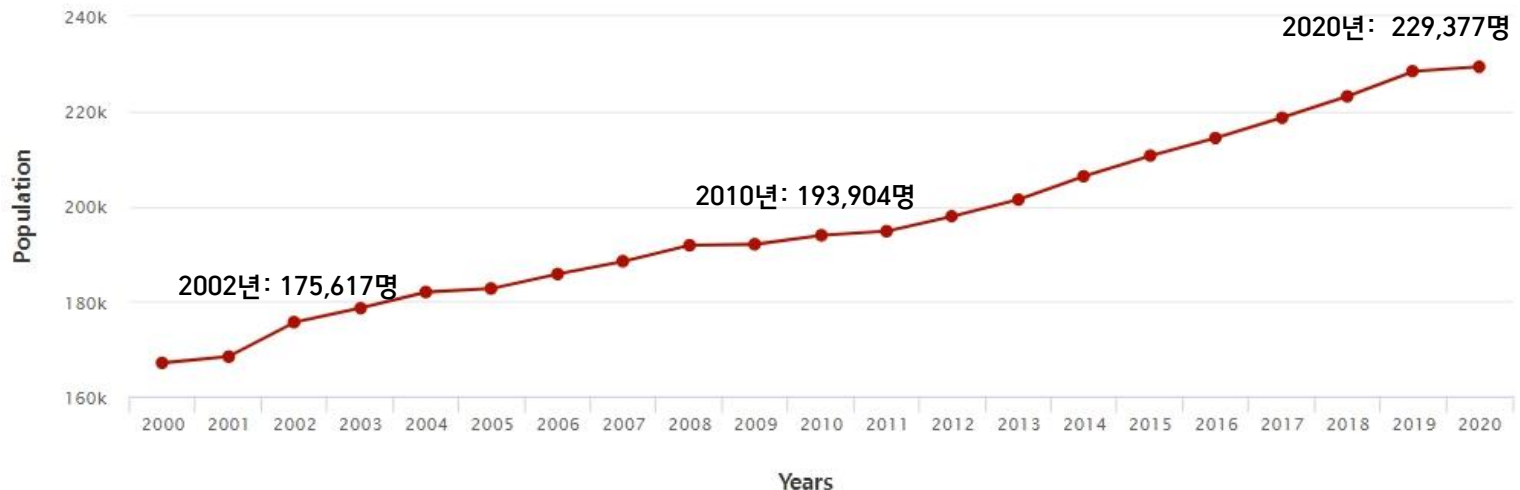
1949.08.12. 제 4차 제네바협약 49항: 점령세력은 점령지에서 피정복민을 강제로 추방, 이송, 소개(비우기) 금지.
점령세력은 자체민간인을 점령지로 이주 금지-> 이스라엘 정착촌 금지

□ 무엇이 문제인가 : 동 예루살렘에서의 정착민 증가, 'Maximum Jews, Minimum Palestinians'

▷ 2019.12.31. 동 예루살렘 거주 팔레스타인인 358,800명, 이들 중 95% 이상은 영주권자임-시민권 없음

Number of Israelis in East Jerusalem Per Year

ICBS data as analysed by JI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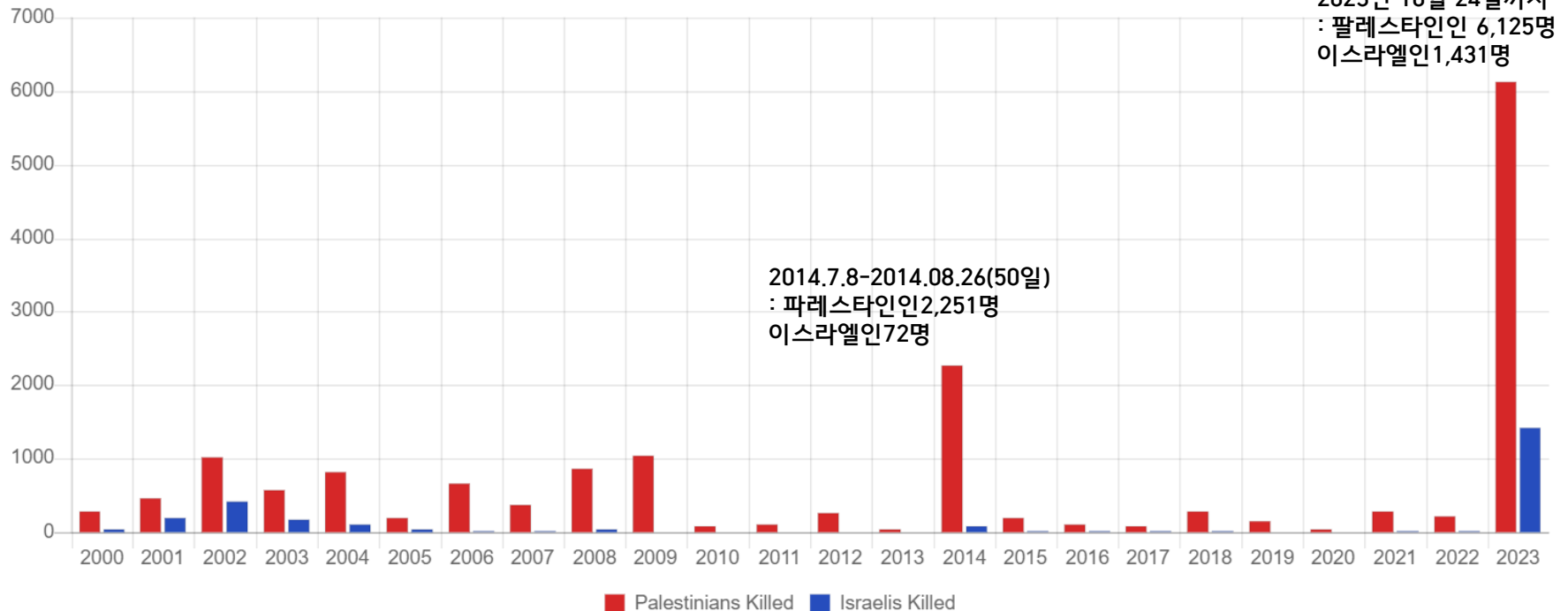
Number of Settlers inside Palestinian Neighborhoods in East Jerusalem

1949.08.12. 제 4차 제네바협약 49항: 점령세력은 점령지에서 피정복민을 강제로 추방, 이송, 소개(비우기) 금지.
점령세력은 자체민간인을 점령지로 이주 금지

□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 살해, 'Maximum Jews, Minimum Palestinians'

2000.09.29~2023.10.24 살해된 인구: 팔레스타인인 16,637명, 이스라엘인 2,746명

People Killed Since September 29, 2000



▷ 인구적 위험 강조: 2003년 11월 13일 인터뷰, 에후드 올메르트(통신부장관, 총리): 'Maximum Jews, Minimum Palestinians'

▷ 통합시도 무력화: 2014년 4월 23일 파타-하마스 협정 → 6월 2일,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구성 → 6월 12일, 서안에서 이스라엘 10대 3명 납치 사건 발생 → 이스라엘은 하마스 비난 → 7월 8일-8월 26일(50일),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팔레스타인 2,251명 사망/이스라엘 72명 사망) → 2014년 12월 예정된 팔레스타인 총선 무산 → 2015년 6월 17일 압바스 수반이 통합정부 해산.

□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 'Maximum Jews, Minimum Palestinians'

2023.10.20. UNOCHA보고서 : 가자 지구 상황

- 가자 지구에서 공습 계속,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이 잔해 밑에 갇혀 있음.
- 팔레스타인 민방위대(자치정부 내무부 소속)를 중심으로 한 구조대는 계속되는 공습, 차량과 장비 운행할 연료 심각한 부족, 그리고 이동통신망 제한되거나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가운데 임무 수행에 어려움 호소.
- 병원들은 환자들로 초만원, 9천 명의 암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가자 지구는 현재 열흘째 전면 정전 상태.
- 가자 지구 주택부서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의 모든 주택 중 30%이상 파괴.
- 서안에서 10월 7일~20일,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이 살해한 팔레스타인인은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82명.

□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 'Maximum Jews, Minimum Palestinians'

2023.10.20. UNOCHA보고서: 사망자 및 난민 발생

가자에서 적대행위 발생 14일째에 집중적인 폭격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인 352명 추가 사망, 가자 누적 사망자 4,137명, 사망자의 60%는 어린이와 여성, 1,000명 이상 실종.
가자 지구에서 140만 명의 내부 난민 발생.

PALESTINIAN CASUALTIES

Gaza*

 4,137 Fatalities

 13,162 Injuries

*According to the MoH in Gaza

West Bank

 82 Fatalities

 1,425 Injuries

ISRAELI CASUALTIES**

Israel

 1,400 Fatalities

 4,629 Injuries

West Bank

 1 Fatalities

 9 Injuries

**According to Israeli official sources

□ 2023.10.13. UNOCHA보고서: 팔레스타인인 축출
이스라엘군, 유엔에게 24시간 안에 북부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110만 명 와디가자 남부로 대피 요청
통보 -> 1948년 이스라엘 건설 이후, 계속된 팔레스타인 축출 전략의 일환



Source: UN Ocha, 2023, Israeli Defence Force



- ▷ **하마스 난민 문제국 성명**
“점령자들의 심리전에 단호히 맞서, 굳건히 집에 남아 있어야 한다”
- ▷ **아랍연맹 사무총장 Ahmed Aboul-Gheit**
“북부 가자 주민 강제 이주는 '범죄'”
- ▷ **2023.10.11. 3국, 미국-이집트-이스라엘 안전 통로 협상 시작**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미국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회랑 제안, 미국은 이집트에게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 희망
- ▷ **3국 논의 결과, 이스라엘 고위 관리**
“미국 여권을 제시하면 라파 국경 통과 허용,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은 하루에 2,000명으로 제한, 가능한 한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를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힘

2023.10.18. 이스라엘 외무장관, 엘리 코헨은 군대라디오 인터뷰 : 전쟁이 끝나면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가자 지구의 영토도 줄어들 것.



TIMESOFISRAEL.COM

Foreign minister: At war's end, not only will Hamas be gone, but Gaza's territory will shrink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foreign-minister-at-wars-end-not-only-will-hamas-be-gone-but-gazas-territory-will-shrink/?fbclid=IwAR3_f8CyBUS6w_7s-Bcun3ypF6WWkIcS31EXkaCoK1AfEQ0d7UBTsgq4x0s

2023.10.19. UNOCHA가 낸 보고서,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과 접근 제한이 강화된 가운데, 10월 7일~19일에 서안 C 지역 소재 13개 베두인 공동체에서 최소 74가구, 545명 추출



Middle East Monitor

<https://www.ochaopt.org/content/hostilities-gaza-strip-and-israel-flash-update-14>

<https://www.facebook.com/photo?fbid=708468467979852&set=a.592817986211568>

□ 2023.09.22. One State, Israel: 네타냐후 78차 유엔 총회 연설, 새로운 중동-팔레스타인 없음
: 원주민 인구 문제? 'Maximum Jews, Minimum Palestinians'



Israel-Saudi Arabia: Netanyahu promotes normalisation with new map erasing Palestine

Illustration shown by Israeli prime minister at UN includes occupied West Bank and Gaza as part of Israel

▷ 2022.08.30. 하이파대학, 지리&인구학 교수 아르논 소퍼

이스라엘이 소수 지배 민족으로 전락할 인구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이스라엘, 서안과 가자)에 유대인의 비율은 47% 이하. 평균적으로 아랍인이 유대인보다 더 젊고 더 빠르게 증가.”

▷ 2021.01.12. 이스라엘 인권단체 베첼렘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전지역을 통치하는 유대인 우월주의에 토대를 둔 하나의 인종차별주의 국가가 있음”

▷ 2022.10.13. 팔레스타인-이스라엘관계 전문 미국 정치학자 노먼 핀켈스타인

“10월 7일에 발생한 사건은 식민지 지배자들에 맞서는 ‘노예반란’과 유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침략을 자초. 이스라엘은 외국과 전쟁 중이 아님. 가자는 이스라엘의 필수적인 일부.”

□ 2023.10.07. 알아크사 홍수(Al-Aqsa Flood) 작전: HAMAS가 2007년 이후 완전히 봉쇄당한, 하늘만 뚫린 가자 지구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와 맹렬한 기세로 공중, 지상, 해상공격. 하마스는 이번 작전이 '점령된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모스크습격'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 증가'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힘.

□ 2023.10.07.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하마스 목표물에 대한 철의 검작전 (Operation Swords of Iron) 을 시작. 가자지구에 대한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으로 확대, 2007년 이후 심각한 포위망에 시달려온 지역의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

□ 가자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피난 요구

- 2023.10.08. 이스라엘총리 네타냐후는 가자주민들에게 “지금 떠나라, 우리는 모든 곳에서 강력하게 활동할 것이다. 하마스과 관련된 장소를 폐허의 섬으로 만들 것이다.”
- 2023.10.08. 이스라엘군 대변인Richard Hecht.“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가라”
- 2023.10.09.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Yoav Gallant “가자 '완전 봉쇄' 발표: 전력, 식량, 연료 없음. 우리는 **인간 동물들human animals**과 싸우고 있음”
- 2023.10.12. 네타냐후, “하마스는 IS, 완전 제거 촉구; 미국무장관 블링컨은 이스라엘 방문, “미국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
- 2023.10.13. 요르단국왕압둘라2세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면 안 됨. 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난민문제 악화”, 팔레스타인수반 압바스 “가자주민을 몰아내는 것은 '제2의 나크바’”
- 2023.10.15. 바이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해야 함, 가자 지구를 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

□ 2023.10.14. 전임 주미이스라엘 대사, 데니 아얄론

이집트 시나이 사막에 가자 주민들을 위한 '끝없는 공간'이 있으며, 그들을 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함.
이스라엘은 가자주민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인도주의 통로 설치 원함.

2023.10.14. 전임 주미이스라엘 대사 데니 아얄론: 이집트 시나이 사막에 가자 주민들을 위한 '끝없는 공간'이 있으며, 그들을 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MIDDLEEASTMONITOR.COM

Israeli diplomat: There's endless space in Egypt's Sinai Desert for Gaza's civilians

Israeli diplomat Danny Ayalon tells an Al Jazeera reporter there is 'endless space' for Gaza's civ...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31014-israeli-diplomat-theres-endless-space-in-egypts-sinai-desert-for-gazas-civilians/?fbclid=IwAR059R52fuYNJ5GnxXNxdkRFck1GPTXlvqFqrhpaGBQp12LBowolIGt9Bc>

□ 1967년 전쟁과 난민 발생



-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의 노동당 정부가 주도한 이 전쟁은 이집트를 선제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영토 점령: 이스라엘은 시나이, 서안, 가자, 골란고원 등 기존 영토의 3.7배인 약 7만km²를 장악하였음.
 - 난민 발생: 43만 4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점령지로부터 퇴거. 이들 중 대다수는 요르단으로 이주. 피난 가지 않았던 10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점령하에서 생활.
 - **휴전: 이스라엘은 7일 요르단, 8일 이집트, 10일 시리아와 휴전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집트 공격 개시 6일 만에 압도적인 승리로 전쟁을 끝냄.
 - 현재 분쟁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동예루살렘, 서안, 가자(팔레스타인 영토의 22%)와 골란 고원(시리아)이며, 국제법상으로 이들 지역은 불법적인 점령지임.
 - 1967년 9월 1일 수단, 카르툼 아랍연맹 정상회의 '3가지 NO' 채택: .no peace with Israel, no negotiations with Israel, no recognition of Israel.
-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1973년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사이에 간접 협상 혹은 비밀 직접 협상은 계속됨.

□ 1967년 전쟁에 대한 유엔의 대응: 안보리 결의 242호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 (1967년 11월 22일)]

- 최근의 분쟁에서 점령한 영토로부터 이스라엘 무장 병력의 철수(Withdrawal of Israel armed forces **from territories** occupied in the recent conflict).
- 교전 주장 혹은 교전의 종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Every State)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 정치적 독립의 인정 및 존중
-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
- 이 지역 모든 국가(Every State)의 영토에 대한 불가침성과 정치적 독립 보증.

=>>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현존하는 국가들 사이의 해법
;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 이외에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해결방안 없음

현재까지 이 분쟁에 대하여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들,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들은 모두 242 호가 분쟁 해결의 토대라고 명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도 안보리 결의 242호가 분쟁 해결의 기초라는 사실에 합의

□ 분할 통치 전략: 무슬림형제단, 하마스 창설

▷ 무슬림형제단: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대항마 -> 걸프 왕국들이 후원

- .하산 알 반나(1906-1949.02.12) 1928년 3월 수에즈 운하회사 소속 6명의 노동자와 함께 이스마일리아에서 범이슬람주의 종교, 정치, 사회운동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 창립. 영국 수에즈운하 회사가 무슬림형제단 본부, 이스마일리아 모스크 건설을 위해서 500파운드 자금 조달(이 회사는 기독교회 건축을 위해서 500,000파운드 기부)
- 6명으로 시작한 무슬림형제단은 설립 10년이 지난 1930년대 후반에는 20-50만 명, 1949년 알 반나가 암살당하기 직전에는 200만 명의 회원(당시 이집트 총인구가 2천만)을 가진 이집트의 전국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 무슬림형제단은 냉전 시절에 미국 CIA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1950년대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무슬림형제단 또는 무슬림형제단 분파들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음.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익숙한 패턴을 볼 수 있음. 미국 정치인들은 무슬림형제단이 유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미국의 목표에 걸맞게 그것을 활용하려고 노력.
- 2017년 CIA가 트럼프행정부의 무슬림형제단 외국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 시도 반대.

▷ 하마스: PLO에 대한 대항마 -> 팔레스타인 민족운동 분열

-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1935년에 예루살렘에, 1936년 11월 말 가자에 지부를 개설.
- 1967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했을 때 무슬림형제단 회원들은 저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사회 종교 개혁과 이슬람 가치 회복에 집중.
- 1973년에 아흐마드 야신(1937~2004)은 무슬림형제단의 분파로서 가자지구에 사회종교 자선 단체, Islamic center를 설립.

□ 분할 통치 전략: 무슬림형제단, 하마스 창설

▷ 하마스: PLO에 대한 대항마 -> 팔레스타인 민족운동 분열.

- 1970년대~1980년대 초까지, 이스라엘은 아흐마드 야신의 자선단체가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에 대한 대항마로 간주하고 이를 확대하도록 독려.
- 1970~1980년대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군부통치자 이츠하크 세게브(Yitzhak Segev)는 야신의 자선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뉴욕 타임즈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나에게 예산을 주었고, 군사 정부는 모스크에 기부했다. 이 자금은 이슬람 사원과 종교학교, 클럽, 도서관 건설 등을 위해 쓰였는데, 이는 PLO 좌파와 민족주의자에 맞서는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1970~1980년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종교 담당 관리, 아브너 코헨(Avner Cohen)은 2009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감스럽게도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창조물 Hamas, to my great regret, is Israel’s creation. 이스라엘은 PLO 주류 세속적인 민족주의자들에 맞선 대항마로 간주하였다.”라고 밝힘.
- 1988년 8월 18일, 하마스 헌장을 발표, 여기서 하마스는 자신을 무슬림형제단의 한 지부로 정의하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슬람국가수립 열망표현(비교:1988.11.15. PLO 22%, 동예루살렘, 서안, 가자에 독립국가 선언).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창설 이후에도 하마스가 구축한 광범위한 병원과 학교 네트워크는 팔레스타인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음, 이는 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비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
- 하마스는 서안 제닌에서 1997년부터 종합병원을 운영, 가자와 서안의 난민 캠프 등 빈민가에서도 92개의 작은 병원을 운영,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에게 무료 진료.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 하마스의 봉사활동은 주로 모스크와 연대해 이뤄지며, 자금은 전 세계의 무슬림형제단에서 제공.

▷ **하마스가 제 1정당: 내전 및 서안/가자 지리적 분열 초래.**

- 2006년 1월 25일, 팔레스타인 의회의원 선거에서 하마스는 74석을 확보함으로써 제 1당이 됨.
(전국구 비례대표 투표 29석/66석 확보, 지역구 45석/66석 확보).
- 하마스 지지율이 가자보다 서안에서 높음: 가자에서 15석/24석, 서안에서 30석/42석 확보
- 파타를 포함한 다른 파벌들은 하마스와 연합내각 구성을 거부
- 2006년 3월 29일, 이스마일 하니 야가 하마스 단독 내각 구성하고 총리에 취임.
- **이스라엘, 중동 평화협상 4자(UN, 미국, EU, 러시아)는 자치정부에 맞서 제재를 부과. 중동 평화 4자는 해외원조 프로그램 중단, 이스라엘은 서안과 가자에서 자금, 주민, 물품 출입을 제한하는 제재부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서 걷은 세금을 건네주지 않았음.**
- 2006년 미국은 하마스가 이끄는 자치정부를 겨냥하여, 파타출신 수반 압바스에게 충성하는 '자치정부 수반 경호부대' 창설. 당시 텔 아비브 주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담당 미국 보안 조정관 케이스 데이튼 중장이 3,500명 정도로 수반 경호부대 조직, 훈련시킴. 요르단과 이집트도 이 부대원들 훈련에 협조.
- 2007년 2월 8일, 하마스와 파타는 팔레스타인 통합 정부 구성 위한 메카협정 체결(압둘라 왕 중재).
- 2007년 3월 17일 하마스출신 총리 이스마일 하니야가 이끄는 통합정부 출범(25명 연합 내각).
- **통합정부는 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한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적인 재정 원조를 다시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 하마스와 파타간의 유혈분쟁은 계속→ 2007년 6월 10~15일까지 진행된 하마스/파타 내전에서 118명이 사망, 서안과 가자의 지리적인 분할. 하마스가 가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파타를 축출, 파타는 서안에서 하마스 출신 관리들을 축출→ 2007년 6월 14일, 자치정부 수반 압바스가 통합정부 해체를 선언→ 2007년 9월 19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를 '적지'로 선언.**

□ 두 국가 해결안 및, 자치정부,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 여론

: 라말라 소재 팔레스타인 정책 조사 연구 센터 2023년 3월 조사

표본(120개 장소, 1,200명의 팔레스타인 성인 대면 인터뷰, 오차한계는 +/-3%)

- 27%는 두 국가 해결안 지지.
- 74%는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으로 인해 이 두 국가 해결안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
- 58%는 무장 투쟁 및 민중봉기 복귀 지지.
- 52%는 자치정부 해체 지지.
- 69%는 국제 기구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막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
- 82% 자치정부 기구들이 부패했다고 판단.
- 71%는 하마스 기구들이 부패했다고 판단.
- 63%는 자치정부가 전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부담이라고 판단.
- 57%는 자치정부의 유지가 이스라엘에게 이익이라고 판단
- 52%는 자치정부 해체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익이라고 판단.
- 다수는 이스라엘이 자치정부에 가하는 징벌적 조치는 자치정부 약화를 위한 것이고, 자치정부 붕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 두 국가 해결안 및, 자치정부,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 여론

: 라말라 소재 팔레스타인 정책 조사 연구 센터 2023년 9월 조사

표본(127개 장소, 1,270명의 팔레스타인 성인 대면 인터뷰, 오차한계는 +/-3%)

- 2/3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 상황이 오슬로 이전의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
- 68% 팔레스타인인들은 오슬로 협정이 팔레스타인 민족 이익을 손상시켰다고 생각
- 63% 팔레스타인인들은 오슬로 협정 포기 지지.
- 78%는 압바스의 사임 요구
- 새 의회선거에서, 파타는 36%, 하마스는 34%
- 압바스 후임 수반 지지도: 마르완 바르구티 34%, 이스마일 하니아 17%, 무함마드 다흘란 6%, 칼리드 마샬 5%, 야히야 신와르 3%
- 팔레스타인 대표 자격: 하마스 27%. 파타 24%, 43%는 하마스와 파타 모두 대표 자격 없다고 답.
- 87% PA 기구부패, 72% 하마스 기구 부패
- 62% PA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부담
- 60% 무장단체와 PA 보안대 사이의 내전 가능성이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https://pcpsr.org/en/node/955>

☐ 두 국가 해법, 유엔 평화 유지군 파견, 국경 획정 ?

1. 유엔은 즉각 가자 공격 중지 요청하고, 평화 유지군 파견해야 함
2. 유엔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국경을 획정해야 함.
3. 유엔은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의회 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함.